성곽마을 소식을 한자리에

성곽마을 소식지

2021 8 AUGUST vol.21

발행 및 편집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문의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citywall_village@naver.com

8월 성곽사협 정기이사회 개최



8월 12일(목) 성북플랫폼에서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성곽사협)의 정기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성곽사협이 참여 중인 사업 현황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공유 및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성곽마을 박물관 뮤지엄숍의 마을상품 판매수익 현황을 확인했으며, 9월 서울시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1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기획을 위해 일정, 진행방식, 홍보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콘텐츠('성곽마을 랜선 나들이')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곽사협의 조직목표와 비전, 성곽마을 앵커시설 무상사용승인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성곽사협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김다영/기자

성곽사협 사무국 운영회의



8월 11일(수) 성곽사협 정기이사회 준비를 위한 사무국 운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성곽마을 계간지 기획으로 성곽사협 사무국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성곽마을 앵커시설(지역거점시설)의 모습을 잘 전달하기 위해 성곽마을 박물관 및 성곽마을 여행자센터에서 이뤄졌습니다. 성곽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 향후 성곽마을 및 성곽사협의 비전, 성곽사협 사무국으로서 임하는 포부 등이 담긴 인터뷰였습니다. 향후 계간지 여름호에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곽마을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성곽사협이 되겠습니다.

김다영/기자

충신, 성곽마을 물들이다 전시



8월 10일부터 '충신성곽 물들이다' 전시회가 성곽마을 박물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신 하하부채의 멋스러움은 여전하구요. 동트는 순간부터 낙산성곽의 봄·여름·가을·겨울 사계가 12달로 펼쳐 졌습니다. 작품을 전시하는 충신권 성곽마을 주민들은 전날 밤까지 전시물 배치부터 공간 설정까지 함께 고민했고, 전시 당일도 퇴근 후 모여 늦은 시간에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마음 가득 정성 가득 함께 하는 충신권 성곽마을의 '충신성곽 물들이다' 전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한설/기자

성곽마을박물관 마을큐레이터 입문과정 시작



8월 25일(수) 성북플랫폼에서 총 8회에 걸친 성곽마을박물관 마을큐레이터 기초교육이 열렸습니다. 첫날은 1, 2강을 함께 진행했는데 마을 큐레이터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역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큐레이터는 전시기획자를 말합니다. 마을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마을의 여러 사실들을 찾고 검증하여 그 맥락을 재구성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개념을 확실히 잡고 시작하니 3시간의 교육이 짧게 느껴질 만큼 알차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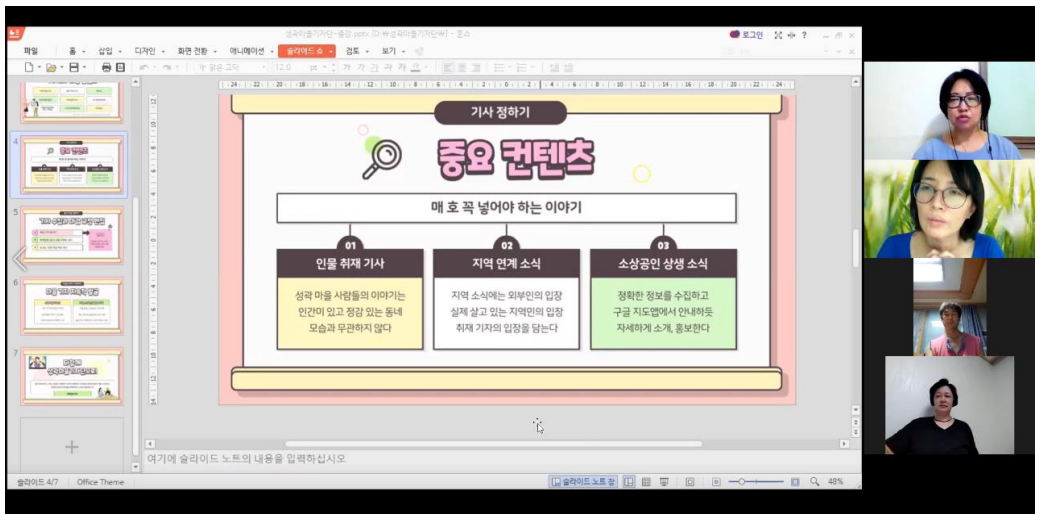
서울시 소통회의 개최



8월 5일(목)과 19일(목)에 두 차례의 서울시 소통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5일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2021년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축제의 기획과 성곽사협의 향후 5년의 비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조직의 요구에 앞서 성곽사협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이사회와 논의해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9일은 현재 성곽마을의 공동체 운영회 현황 및 무상사용신청 예정인 거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8월 중 성곽사협 이사회와 서울시의 간담회 개최 여부 및 일정도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김종대/기자

성곽마을 기록단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진행



8월 3일(화)부터 17일(화)까지 3회에 걸쳐 성곽마을 기록단 역량강화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상반기에 5회차로 진행했던 기록단 글쓰기 기초과정과 연계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사를 쓰기 위한 글쓰기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다운 기사작성을 위한 기획취재, 밀착취재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기사 예문을 참고하고 실전 글쓰기와 원고첨삭의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하반기 역량강화 심화과정을 통해 주민 기자로의 자세와 기사형 글쓰기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 마을소식을 공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까이가와 아츠코/기자

'2021년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관련 성곽사협 탐방분과장 회의 분과장회의



8월 10일, 장충동 기억의 공간에서 '2021 성곽마을 주민한마당'과 관련해 탐방 분과 책임이사 회의를 가졌습니다. 성곽사협 탐방 분과 책임이사를 맡고 계시는 광희장충 성곽마을 이승옥, 다산 성곽마을 이계용 이사님 두 분의 주도로 코디네이터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곽마을의 존재를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성곽마을의 가치를 느끼고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주민한마당을 위해 바쁜 시간에도 자리하셔서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신 두 분 이사님의 열정에 함께 한 코디네이터들도 큰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원활한 회의를 위해 회의 공간과 부족한 의자를 준비해 주신 광희장충 성곽마을 이승옥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대/기자

혜화·명륜권 소식

혜화·명륜 성곽마을 대표 이주희

마을여행 협동조합 돌레길 '2021 마을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공모전' 선정



혜화명륜 성곽마을 마을여행 협동조합 돌레길이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한 '2021 마을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공모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고유 특색을 담은 숨은 콘텐츠 발굴을 통해 로컬관광을 활성화 하고 마을관광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돌레길 협동조합의 '성균관 유생과 반촌의 하루' 콘텐츠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학과 상생하고 있는 혜화명륜 성곽마을의 특색을 잘 담고 있다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서류와 PT발표, 두 차례의 평가로 이루어진 공모심사는 많은 단체가 참여해 돌레길 협동조합도 긴장되는 과정이었지만, 그동안 차곡차곡 정리해 온 혜화명륜 성곽마을의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PT심사에서 코로나로 마을관광이 어려운 가운데 창업을 하고 활동을 이어 나가는 돌레길을 걱정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요. 선정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공모전 선정으로 하반기에 돌레길은 영상콘텐츠 제작, 이벤트 진행과 같은 홍보지원과 기획자 아카데미, 전문가 자문, 시민체험단 운영, 판로지원 등 운영지원을 받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한 혜화명륜 성곽마을 탐방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자들과 함께 힘차게 움직이는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기자

광희·장충권 소식

광희·장충 성곽마을 대표 이승옥

작은마을 어르신들께 캘리글씨 손수건 전달



8월 5일, 모이소에서 작은마을 어머니들에게 땀 닦으시라고 손수건에 정성 담은 캘리글씨를 써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직접 와 주어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송구스러운 마음이네요. 미장원 원장님께서는 머리를 매만져 주신다 하시고, 작은 나눔의 기쁨에 더위가 싹 날아간 하루였습니다.

이승옥/광희장충 성곽마을 대표

모이소 거미굴 작가, 을지로 전시회 개최



광희장충 성곽마을 "모이소" 지하 거미굴에서 활동중인 류지영, 최영지 작가가 을지로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그냥! 이대로 행복한 전시 Persona“ 였습니다.
모이소 식구들이 거미굴 작가들을 응원하러 전시장으로 대거 출동하였답니다. 활기찬 청년 작가들과 함께 하니 광희장충 모이소도 더 젊어 지는 것 같습니다. 을지로 4가 산림동에 위치한 마술소(마을예술창작소)에서 9월 5일(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추후 모이소 지하 전시실에서 새로운 기획으로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나까이가와 아츠코/기자

이화·충신권 소식

충신권 성곽마을 대표 김영수

충신성곽마을 이웃돕기 성품 및 감사패 전달식



8월 9일 종로구청에서 〈종로5.6가동 이웃돕기 성품 및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 선 충신권 성곽마을 김상업 통장님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상업 통장님께서 덴탈 마스크 8만장을 기부하셨습니다. 기부된 성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현주/기자

충신시장 앞 회원교차로와 정원조성



종로5.6가동 충신시장 앞에 회전교차로가 생기고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조성을 하였습니다. 충신권 성곽마을 박수호님과 국철환님께서 반송 2그루를 기증하셔서 더욱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평소 교통정체구간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심했는데 회전교차로로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들과 함께 한 정원으로 주변환경정화까지 해결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기자

행촌권 소식

행촌권 성곽마을 대표 김동수, 박명화

도시농업공동체의 가을배추가 쑥쑥 자라납니다



행촌권 도시농업공동체의 텃밭과 상자텃밭에 김장 무 배추가 아주 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7월 20일 경, 육묘장에서 파종한 무 배추 모종을 8월초에 텃밭으로 옮겨 심었는데 하루하루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장 나눔이 계속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모두가 행촌권 성곽마을 총무님과 회원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김동수/행촌권 성곽마을 대표

다산권 소식

369 성곽마을 대표 김희준

담소정, 우유갑 · 멸균 팩 모으기 환경운동 진행



8월 16일 다산 성곽마을 담소정에 희망지 사업의 일환으로 우유 갑·멸균 팩 모으기 상자가 설치되었습니다. "우유 갑·멸균 팩 모으기"는 우유 갑 20개 또는 멸균 팩 30개를 모아오는 분들께 재생 휴지 2개로 교환해 드리는 환경운동입니다. 우유 갑 또는 멸균 팩을 헹구고 말려 분리 배출하는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고 생활화 할 뿐만 아니라 우유 갑이나 멸균 팩이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현주/기자

부암권 소식

북정 성곽마을 대표 김경동

삼색비빔밥 모임, 부암동에서 나누는 황금 손맛



부암동 '삼색비빔밥'은 종로구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주민 모임입니다. 건강 음식과 봉사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해 보자고 모였습니다. 부암동 인근 고령의 어르신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부암동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암동 주민들이 모여서 알콩달콩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고, 5~10명 정도되는 고령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함께 하는 공유 부엌 활동에 제한이 있어 다같이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몇몇 인원이 장소를 나누어 음식 만들기를 하였으며, 그만큼 더 정성가득 황금 손맛을 더 했습니다. 열무김치와 고추장 비빔밥에 꽈리고추 장조림을 반찬으로, 그리고 한 분 한 분 안부를 여쭈며 무더운 여름을 지났습니다. 부암동의 사랑의 맘으로 준비하는 '삼색비빔밥' 건강밥상은 그 사랑이 황금처럼 반짝입니다.

이기정/부암동 주민

삼선권 소식

369 성곽마을 대표 김희준

369예술터 공간 오픈, 이제는 with 코로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 369 예술터가 다시 공간을 열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동안 369 예술터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전시들을 모아 인스타그램에 소개하였습니다.

369예술터는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 지역기반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지역 밀착형 전시 공간을 지향하며 문화 예술을 매개로 포용적인 연대를 구현하는 공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진확/369마을 주민